경기 불황 장기화에 광주·전남 자영업자 동반 감소

호남데이터청 '4월 지역 고용동향'

전년比 광주 2천명·전남 1만3천명↓
주요 고용지표 지역별 상반된 흐름
고용률 市 1.3p 늘고 道 0.5p 줄어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가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광주는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전남은 하락하면서 시·도 간 고용시장 흐름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13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 수는 42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천명 감소한 수치로, 광주는 2천명, 전남은 1만3천명이 각각 줄었다.

이번 자영업 감소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부담,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 시장은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 현장에는 경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지역 고용지표는 광주와 전남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7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2천명(1.5%) 증가했다. 고용률도 61.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천명·-27.6%), 도소매·숙박·음식점업(-5천명·-3.5%), 제조업(-3천명·-2.4%) 등은 감소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4천명·1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명·2.8%), 건설업(1천명·1.7%) 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명(-14.1%)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3.0%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전남지역 주요 고용지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취업자는 100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천명·3.3%), 제조업(7천명·6.3%), 건설업(4천명·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명·3.9%)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7천명·-9.2%)과 농림어업(-9천명·-4.6%)은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명(13.8%) 증가했고, 실업률은 2.3%로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태호 기자

광주상의, 회원기업 경쟁력 강화 실무교육 잇따라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기업 대상 5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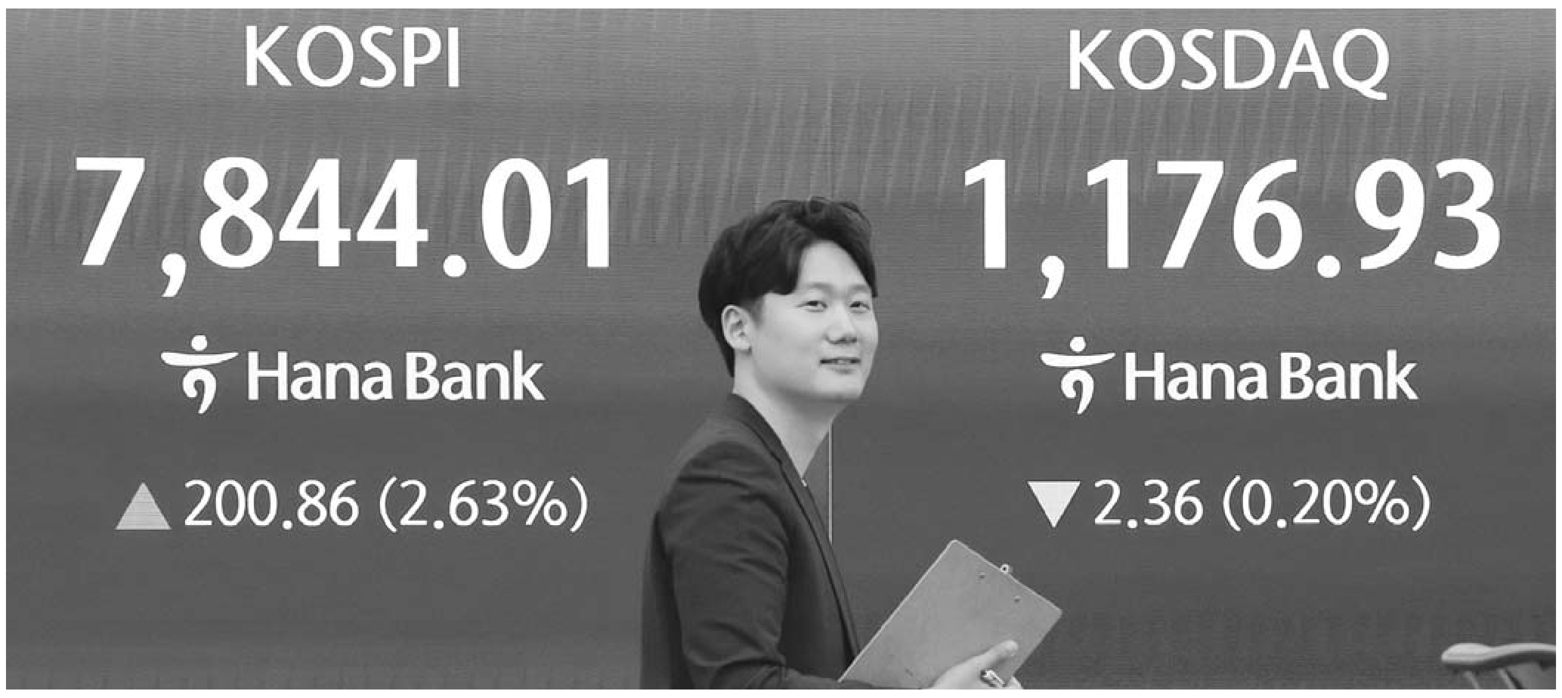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AI를 활용한 엑셀 함수·매크로 실무 적용 방법 뿐만 아니라 회계 및 세무의 기초, 중소기업 절세전략 등으로 구성돼 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교육은 '엑셀 처음 사용자를 위한 필수 노하우' 교육이 마련된다. 강사는 김명옥 강사이며, ▲데이터 가공 핵심 기능 ▲AI를 활용한 함수 및 매크로 적용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7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어 27일에 개최하는 '전 사원이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관리 실무 종합 교육'은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곽은창 세무사를 초빙해 ▲회계 및 세무의 기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을 중심으로 7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상의 김은희 회원사업본부장은 "AI 활용 엑셀 실무부터 세무·회계 관리까지 회원기업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 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만 기자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전장보다 200.86p(2.63%) 오른 7,844.01 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0.7원 오른 1,490.6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2.36p(0.20%) 내린 1,176.93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나선미 금호타이어 상무 '자동차의 날' 장관 표창

금호타이어가 '제23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관 표창 수상자를 배출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1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자동차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나선미 상무는 금호타이어 HR부문 및 R&D 사업화 TF 담당 임원으로서, 중장기 타이어 기술 로드맵 수립과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R&D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나상무는 민간 R&D 협의체 활동 및 주요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약(MOU)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타이어 산업 전반의 인프라 발전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선미 상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도약과 타이어 핵심 기술 확보에 일조하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R&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만 기자

외국인 닷새간 코스피 24조 '팔자'…증시 이탈 우려

순매도 1위 삼성전자·2위 SK하이닉스
전문가들, 일시적 차익 실현 매물 무게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증시 이탈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파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세적 매도 전환보다는 일시적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 장 초반 7,402.36까지 밀리며 7,4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이후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외국인은 이날 대거 순매도에 나서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7천585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총 24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4조6천550억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고점 우려가 커진 것이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대거 반도체주로 향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11조3천890억원 팔았다.

SK하이닉스도 10조60억원 순매도하며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시의 추세적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일시적 차익 실현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15.8%에 달하는 만큼 단기 고점 부담이 커진 영향이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